

## 대구·경북지역 중학생의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행동 및 교육내용 요구도 분석

윤재선\* · 김효정\*\* · 김미라\*\*\*<sup>1)</sup>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인제대학교 생활상담복지학부, 인간환경복지연구소\*\* · 경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장수생활과학연구소\*\*\*

---

### Analysis on knowledge, behaviors, and educational content need regarding green dietary lif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Yoon, Jaesun\* · Kim, Hyochung\*\* · Kim, Meera\*\*\*<sup>1)</sup>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uman Counseling & Welfare, The Institute of Human Environmental Welfare, Inje University\*\**

*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Center for Beautiful Ag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levels of knowledge and behaviors of green dietary life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m, and to examine the educational content need for green dietary lif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46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and Gyeongbuk region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dows V.21.0. The levels of knowledge and behaviors of green dietary life were not generally high.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of health category was higher than that of environment category in the knowledge of green dietary life. On the other hand, in the mean of the behaviors of green dietary life, health, environment, and consideration was higher in order. According to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knowledge of green dietary life, grade was significant. In addition, monthly allowance (60,000~90,000 won), socioeconomic status (medium), and knowledge of green dietary life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behaviors of green dietary life. In the educational content need, the mean of weight maintenance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eparate garbage collection,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healthy foods, and traditional foods.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education to increase knowledge of green dietary life is needed to revitalize behaviors of green dietary life.

**Key words:**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knowledge of green dietary life),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behaviors of green dietary life), 교육내용 요구도(educational content need), 중학생(middle school students)

## I. 서론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식생활의 양적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으나 인위적인 개발로 인한 자연파괴나 식품첨가물의 과다 사용, 광우병, 조류독감, 환경호르몬 등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많은 위험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임노규, 2010). 또한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곡류와 채소류 섭취가 줄어들고 있고, 외식의 확대 및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영양 과잉이나 영양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방 섭취의 증가 등 에너지 공급원의 변화와 육체적 노동 감소 및 운동 부족과 같은 생활양식의 변화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 유병률을 높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과다 발생으로 경제적·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오늘날 현대인의 식생활은 영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Kim, 2013).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동안 ‘웰빙’이 이슈가 되었으나 웰빙이 개인적인 건강과 삶의 질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와 후세의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생활방식을 추구하게 되었다(Choe, 2010). 이에 등장한 것이 녹색식생활 개념이다. 녹색식생활은 기존의 식생활교육의 가치인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과 배려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정신적인 풍요 및 전통적인 어울림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자신 이외의 것들에 대한 배려를 기반으로 한 식생활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따라서 녹색식생활은 우리가 있고 있거나 소홀히 해왔던 식생활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주며, 개인과 가족뿐 아니라 사회와 인류의 건강한 공존의 중요성을 증대시켜줌으로써, 건강, 환경 및 배려가 고려된 식생활 실천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식생활을 통해 건강뿐 아니라 환경을 지키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외국에서도 식생활교육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일본의 식육기본법(食育基本法) 제정 및 지산지소(地産地消) 운동, 미국의 Let's Move 운동, 이탈리아의 슬로푸드(Slow Food) 운동과 스쿨 가든(School Garden), 영국의 로컬푸드 시스템, 푸드 인 스쿨(Food in

Schools)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Jeon et al., 2011; Kim & Kim, 2010). 국내에서도 2009년 식생활교육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그동안 건강 및 영양 측면에서 이루어져 오던 식생활 관련 교육과 함께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 그리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녹색식생활과 식문화 교육을 지향하게 되었다(김정원, 2011).

한편 중학생은 제2의 성장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자아의 식 발달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사회적 성장의 시기(Paek, 2010), 이 시기의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 녹색식생활에 관한 내용에 대해 올바르게 배우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녹색식생활을 잘 실천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또한 산업화에 따라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기회가 줄어들면서 가정에서의 식생활교육의 기회도 점차 감소하게 되어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식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녹색식생활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최근에는 녹색식생활 프로그램 효과에 관한 연구가 몇몇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Joo, 2011; Kim, 2013; Min, 2012),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녹색식생활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또한 녹색식생활 교육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시 학습자에게 교육시켜야 할 내용에 비해 교육에 소요되는 자원들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습자의 요구도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요구도 분석을 통해 학습자들의 흥미와 요구의 적합도에 따라 내용 선정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므로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 교육요구도 분석이 필요하다(Chae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녹색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행동 수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녹색식생활의 개념

녹색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환경),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건강),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배려)하는 식생활”(농림수산식품부, 2010)이다. 즉, 녹색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을 지향하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여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생활을 영위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자연 및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준비해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배려의 마음을 갖는 식생활이라 할 수 있다.

### 2. 녹색식생활의 핵심 가치

녹색식생활의 개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녹색식생활은 환경, 건강, 배려를 3대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환경

과학기술의 발달은 식량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했으나,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 사용은 토양 오염의 환경문제를 초래하였다(Paek, 2010). 또한 유통과정에서 푸드마일리지의 증가 및 소비 과정에서의 음식물쓰레기 과다 발생으로 인하여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도 유발되고 있다. 따라서 환경 영역에서의 녹색식생활은 음식을 생산, 유통, 소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여 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Sin, 2011). 구체적으로는 친환경적인 농업을 통한 생산 방안을 모색하고 로컬 푸드를 이용하며 음식을 남기지 않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

#### 2) 건강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하여 영양 과잉 및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결과 성인병이 증가하게 되어 사회의 경제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득 격차로 인한 결식 및 아침결식으로 성장기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성장 발달 지연이나 학습능력 저하와 같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영양 과잉, 영양 불균형, 결식 등의 여러 가지 식생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녹색식생활의 건강 영역에서는 영양적인 균형, 지역적 균형, 환경과 인간이 이루는 균형성, 조화와 여유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 3) 배려

오늘날 사회구조의 변화 및 맞벌이 가족의 증가로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밥상머리 교육의 의미와 효과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Min, 2012), 밥상머리 교육의 기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음식에 대한 예절 및 기본 마음가짐은 중요한 것으로,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정성을 다하여 만들고 대접받는 사람은 만든 사람의 수고를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Jeon et al., 2011). 이에 따라 녹색식생활의 배려 영역에서는 개인에 대한 배려, 사회에 대한 배려, 자연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으며,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는 자연에 대한 감사,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준비해주는 사람에 대한 감사,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식생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 3. 녹색식생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녹색식생활 교육에 관한 초등학교사의 인식을 살펴본 Kim & Kim(2011)의 연구에 의하면 녹색식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교사가 절반에 못 미치지만, 녹색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녹색식생활 교육의 환경, 건강, 배려의 3대 핵심 가치별 교육내용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 수준에서는 배려영역에서 음식에 대한 감사 교육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영양적 균형 실천(건강), 한국형 식생활의 실천(건강), 환경친화적 식품 소비(환경), 직접 준비하는 식생활 실천(배려), 근거리 농산물 이용의 필요성(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Woo(2011)의 연구에서는 식생활영역 녹색생활 학습요소의 중요도가 5점 만점에 평균이 4.16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농 제품을 이용한 식생활’이 가장 중요도가 높았고 다음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식품과 환경과의 관계’, ‘푸드뱅크 활용’, ‘에코 쿠킹(합리적 조리시간, 물 절약 등)’ 순으로 높았다. 또한 미혼보다는 기혼의 교사가, 그리고 녹색생활교육 연구경험이 없는 교사가 식생활영역 녹색생활 학습을 더 많이 요구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Min(2012)의 연구에서는 녹색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적용 수업이 전통적인 수업보다 건강, 환경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녹색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적용 수업이 아동의 녹색식생활에 대한 바른 태도 함양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요구도를 조사한 Joo(2011)의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7%가 녹색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안전한 식품 섭취’, ‘손씻기’, ‘친환경농산물이란’, ‘골고루 균형잡혀 먹는 법’ 순으로 교육을 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Joo(2011)의 연구에서는 녹색식생활 실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정도는 평균 3.27점으로 나타났으나, 녹색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녹색식생활 개념 이해와 실천 의식이 3.45점으로 높아져 녹색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생활 태도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녹색식생활의 성향을 살펴본 Kim(2011)의 연구에 의하면 녹색식생활 성향의 평균은 5점 만점에 2.99점이었으며 문항별로 ‘과일과 색깔 채소를 많이 먹는다’의 평균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밥과 함께 식사한다’,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침 식사는 꼭 한다’ 순이었다. 조사대상자 용돈의 액수가 적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어머니가 전업주부일 경우 녹색식생활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녹색식생활 태도와 건강지향적 소비행동이 초등학교 자녀의 녹색식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Kim(201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연령이 40세 이하에서 자녀의 녹색식생활 태도가 높았고, 어머니의 감사, 배려하는 식생활 태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환경친화적 식생활 태도와 아동의 전체 녹색식생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대구·경북 지역의 중학교 1, 2, 3 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를 통한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수집되었다. 중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수정, 보완하여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12월 28일까지 실시되었는데, 교사를 통해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260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254부 중 불성실하게 작성된 자료 8부를 제외한 24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들(농림수산식품부, 2010; Joo, 2011; Kim, 2011; Kim, 2013)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게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를 묻는 문항 및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월평균 용돈,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가정형편 등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문항은 녹색식생활 환경에 관한 9문항, 녹색식생활 건강에 관한 10문항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그렇다/아니다/잘 모르겠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맞으면 100점, 틀리거나 잘 모르겠다는 0점 처리하였다. 한편 녹색식생활 배려에 대한 지식은 학생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어 변별력이 없으므로 설문조사에서 배려에 대한

지식문항은 제외하였다.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 문항은 농림수산물품부가 발생한 녹색식생활지침서(2010)에 제시된 「녹색식생활 지침」을 토대로 하여 녹색식생활 환경에 관한 9문항, 녹색식생활 건강에 관한 18문항, 녹색식생활 배려에 관한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이들의 합계 총점이 높을수록 녹색식생활 행동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는 친환경 관련 인증표시의 종류,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방법 등 9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알고 싶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알고 싶다’ 5점까지 Likert 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도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한 결과, 각각 0.92와 0.91로 나와 모두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각 문항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 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Duncan의 다중범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녹색식생활 지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 및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구한 결과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Windows V.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각 문항에 대하여 빈도분석(Frequency)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 문항과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73.6%, 여학생이 26.4%로 분포되었으며, 학년은 1학년 8.9%, 2학년 26.8%, 3학년 64.2%로 구성되었다. 월평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246)			
Variable	Category	N	%
Gender	Male	181	73.6
	Female	65	26.4
Grade	First	22	8.9
	Second	66	26.8
	Third	158	64.2
Monthly allowance (Won)	Under 30,000	62	25.2
	30,000~Under 60,000	134	54.5
	60,000~Under 90,000	25	10.2
	Over 90,000	25	10.2
Father's age	≤49 years old	178	72.4
	≥50 year old	68	27.6
Mother's age	≤49 years old	223	90.7
	≥50 year old	23	9.3
Father's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100	40.7
	Over college graduate	146	59.3
Mother's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134	54.5
	Over college graduate	112	45.5
Socioeconomic status	High	24	9.8
	Medium	200	81.3
	Low	22	8.9

용돈의 액수는 3만원~6만원 미만인 54.5%로 가장 많았고, 3만원 미만 25.2%, 6만원~9만원 미만과 9만원 이상이 각각 10.2% 순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49세 이하가 72.4%이었고 어머니의 연령은 49세 이하가 90.7%이었다. 부모님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아버지의 경우 40.7%, 어머니의 경우 54.5%이었다. 학생 스스로 인식한 가정형편은 상 9.8%, 중 81.3%, 하 8.9%이었다.

## 2.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 1)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정답률

조사대상자의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정답률의 평균은 Table 2와 같이 56.95%로 나타났다. ‘녹색식생활 환경’과 ‘녹색식생활 건강’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식 점수를 살펴본 결과 녹색식생활 환경에 대한 지식 정답률의 평균이 52.03%, 녹색식생활 건강에 대한 지식 정답률의 평균이

61.38%이었다.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Joo, 2011)에서도 녹색식생활에 대한 이해, 지역농산물, 영양, 한식, 식사예절에 관한 녹색식생활 지식 점수가 20점 만점에 10점 이하인 비율이 51.8%, 11점 이상 15점 이하인 비율이 42.7%로 높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중학교에서 녹색식생활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학생의 식생활 관련 환경지식과 환경의식 및 환경친화적 식생활 관리 행동에 대한 연구(Lee, 2005)에서 중학생들의 환경지식 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54.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녹색식생활 환경 문항 중 ‘냉장고에는 가능한 식품을 많이 넣어야 전기가 절약되고 효율적이다’라는 문항의 정답률이 82.93%로 가장 높았으나, ‘물레방아 마크는 친환경식품을 표시하는 마크이다’라는 문항의 정답률은 16.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한편, 녹색식생활 건강 문항 중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 위암의 발병율을 높인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아침을 굶는 것이 효과적이다’의 정답률이 89.43%로 가

Table 2.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knowledge of green dietary life

Category	Question	M±SD(%)
Environment	We should put a lot of foods in the refrigerator to save electricity and to use it efficiently.	82.93±37.70
	The environmental pollution can be reduced when we press out all water from food waste.	78.86±40.91
	The leachate of food waste pollutes the soil.	71.54±45.21
	Because food leftovers are waste, they cannot be reused.	60.57±48.97
	The plastic bags such as snack pack and noodle pack can be recycled.	44.31±49.78
	Eating imported food is little related to the environmental pollution.	43.90±49.73
	The glass bottles can be reused regardless of the color.	40.65±49.22
	The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the foods without using pesticides.	29.27±45.59
	The mark of waterwheel indicates eco-friendly food.	16.26±36.98
	Total	52.03±20.52
Health	The habit of eating too much salt can increase the risk of high blood pressure and stomach cancer.	89.43±30.81
	To skip the breakfast is effective in dieting.	89.43±30.81
	Eating much vitamin supplements is good for your health.	80.49±39.71
	High fat and low fiber intake increases the risk for colorectal cancer, breast cancer and prostate cancer.	76.42±42.54
	It is the same in the nutritional value between fruits in season and fruits growing in green house.	67.48±46.94
	People require all same kinds of nutrient with different amount according to age and gender.	60.57±48.97
	Women need more iron than men.	49.19±50.10
	The cholesterol is required to keep our body in good condition.	47.97±50.06
	More activities increase requirement of Vitamin B.	39.43±48.97
Apples and oranges are acid foods.	13.41±34.15	
Total	61.38±20.32	
Total	56.95±17.88	

장 높았고, ‘사과, 오렌지는 산성식품이다’라는 문항의 정답률은 13.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녹색식생활 환경 영역에서 ‘물레방아 마크는 친환경식품을 표시하는 마크이다’ 및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다’가 다른 문항에 비해 낮은 정답률을 보였는데,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식생활의 영위를 하는데 유용한 식품이므로, 친환경농산물의 의미,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필요성,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및 인증마크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녹색식생활 건강 영역에서는 ‘사과, 오렌지는 산성식품이다’, ‘비타민 B군은 활동량이 많을수록 필요량이 증가한다’에 대한 정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녹색식생활 교육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Kim & Kim, 2011)에서도 균형잡힌 식생활의 실천 관련 내용에 대해 대다수(97.17%)의 교사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볼 때 학생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녹색식생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식품과 영양에 대한 지식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편중 등은 생활 습관병을

유발하여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지식을 함양하여 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정답률 비교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정답률 차이를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비교한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었다.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정답률은 조사대상자의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월평균 용돈, 아버지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형편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p<0.01), 그리고 학년의 경우 3학년이 1학년에 비해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정답률이 높게 나타났다(p<0.05). 중학생의 환경지식 실태를 분석한 연구(Lee, 2005)에서도 환경지식 점수가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3학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Table 3.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knowledge of green dietary lif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M±SD(%)	t/F
Gender	Male	58.83±17.32	2.69**
	Female	51.74±18.50	
Grade	First	48.56±17.41 <sup>b</sup>	4.22 <sup>*</sup>
	Second	54.63±18.18 <sup>ab</sup>	
	Third	59.09±17.45 <sup>a</sup>	
Monthly allowance (Won)	Under 30,000	52.46±18.13	2.15
	30,000 ~ Under 60,000	57.66±18.26	
	60,000 ~ Under 90,000	61.47±15.02	
	Over 90,000	59.79±16.36	
Father's age	≤49 years old	56.00±19.00	-1.53
	≥50 year old	59.44±14.35	
Mother's age	≤49 years old	56.72±18.15	-0.75
	≥50 year old	59.27±15.16	
Father's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51.50±21.61	-0.73
	Over college graduate	53.43±17.41	
Mother's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55.42±16.99	-1.46
	Over college graduate	58.79±18.80	
Socioeconomic status	High	61.40±16.48	1.32
	Medium	56.87±17.39	
	Low	52.87±17.88	

<sup>\*</sup>p<0.05, <sup>\*\*</sup>p<0.01; <sup>a, b</sup> show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3.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

#### 1)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 수준

조사대상자의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22점이었는데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 55.83점으로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정답률인 56.95점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Table 4). 녹색식생활 행동을 ‘녹색식생활 환경’, ‘녹색식생활 건강’, ‘녹색식생활 배려’의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녹

Table 4. Practice of green dietary life

Category	Question <sup>1)</sup>	M±SD
Environment	I separate collection of used cans and bottles.	3.88±0.99
	I order foods only as much as I can eat.	3.65±0.97
	When I do the dishes, I wash the oily dishes after wiping with tissue.	3.52±1.18
	I do not use the disposables if possible.	3.36±1.02
	When I buy foods, I check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	3.15±1.14
	Whenever I go shopping for groceries, I take my shopping bag.	3.04±1.26
	I leave the food frequently in school feeding. <sup>2)</sup>	3.00±1.04
	When I eat out, I take leftovers home.	2.79±1.28
	I wash and dry the milk carton for recycling after drinking a milk.	2.70±1.31
	Total	3.23±0.65
Health	I have three meals regularly a day.	3.82±1.15
	I have a meal with my family.	3.60±1.10
	I wash the hands before meals.	3.56±0.98
	I eat various colored fruits and vegetables.	3.54±0.96
	I have balanced meals without choice.	3.50±1.03
	I take meat, fish, eggs and beans every day.	3.48±0.92
	I often eat the rice cake or noodles instead of steamed rice. <sup>2)</sup>	3.47±1.10
	I eat all kinds of food without eating only what I want.	3.45±1.04
	I eat multi-grain or brown rice instead of white rice.	3.41±1.02
	I try to keep normal weight.	3.38±1.05
	I do not overeat.	3.35±1.03
	I exercise more than 30 minutes at a time.	3.35±1.18
	I have a meal in a courteous manner.	3.18±1.02
	I exercise regularly more than three times a week.	3.10±1.17
	I avoid too much fat foods if possible.	3.08±1.04
I do not enjoy eating processed food or instant food.	3.03±1.05	
I have a meal talking in whispers.	2.98±1.14	
When I have a meal, I turn off the TV.	2.59±1.30	
	Total	3.33±0.56
Consideration	I think the foods valuable.	3.63±0.98
	I have experienced farming and fishing village.	3.25±1.30
	I am thankful to cook every meal.	3.22±1.01
	I enjoy making foods with my family.	2.95±1.14
	I experience the culture of traditional dietary life.	2.93±1.15
	I eat the street foods very carefully.	2.83±1.05
	I share the foods with poor neighbors.	2.70±1.07
	I grow the vegetables with my family.	2.69±1.31
	Total	3.02±0.77
	Total	3.22±0.57

<sup>1)</sup> Rated with a 5-point scale: 1=Never and 5=Highly.

<sup>2)</sup> It was recoded.



색식생활 건강에 대한 행동 평균이 3.33점으로 가장 높았고 녹색식생활 환경은 3.23점, 녹색식생활 배려가 3.02점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11)의 연구에서도 녹색식생활 건강영역 3.22점, 환경영역 3.17점, 배려영역 2.75점으로 건강, 환경, 배려 영역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녹색식생활 교육에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준 사람에 대한 감사, 어려운 이웃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 등 배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Kim & Kim(2011)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식생활 교육에서 환경, 건강, 배려 중에서 배려 영역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학교 교육에서 배려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Lee(2005)의 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식생활 관리 행동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2.93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보다 다소 낮았으며, 농산물 품질 인증마크나 환경마크를 확인하고 식품을 구입한다 등의 식품구매 시 행동 점수는 2.69점으로, 식사 시 행동 점수(3.03점)와 뒤처리 행동 점수(3.06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녹색식생활 환경에 대한 행동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마시고 난 캔이나 병을 분리수거 한다(3.88점)’ 문항이었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은 ‘우유를 마신 후 우유통을 씻어서 말려 재활용으로 배출한다(2.70점)’이었다. 따라서 학생들이 단순한 분리수거는 잘 하고 있으나 용기를 씻어서 배출하는 행동은 잘 하지 못하고 있어, 분리수거의 모든 과정을 잘 수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식생활 건강에 대한 행동 문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하루 세끼는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먹는다(3.82점)’이었다. 한편 ‘식사할 때는 TV를 끈다(2.59점)’와 ‘소곤 소곤 대화하며 식사한다(2.98점)’에 대한 점수가 낮았는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2011)의 연구에서도 ‘식사할 때는 TV를 끈다’가 2.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많은 청소년들이 식사를 할 때 TV를 보는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올바른 식사예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녹색식생활 배려에 대한 행동 문항에서는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문항의 행동 평균이 3.63점으로 가장 높았고, ‘가족과 함께 채소를 기른다’라는 문항의 행동 평균이 2.69점으로 가장 낮았다.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채소가꾸기 활동이 사회성의 향상이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Jung & Bang, 2008; Kim & Jeong, 2008), 또한 가족끼리 화분이나 텃밭을 이용하여 채소를 기르면서 가족 간의 단합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배울 수 있으므로 가족과 함께 채소를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길거리 음식을 가려 먹는다’에 대한 점수도 다소 낮았는데, 이는 맛별이 부부의 증가나 청소년들의 학교나 학원 이동 중 짧은 시간동안의 간식이나 식사 등으로 길거리 음식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이거나 영양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식생활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조사대상자 특성에 따른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 비교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5와 같이 가정형편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가정형편이 ‘하’인 학생들이 ‘중’인 학생들에 비해 녹색식생활 행동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 한편 성별, 학년, 월평균 용돈, 아버지의 연령, 어머니의 연령,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형편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생의 환경친화적 식생활 관리 실태를 조사한 연구(Lee, 2005)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행동 점수가 높아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 4.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1)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월평균 용돈, 부모의 연령,

Table 5. Practice of green dietary lif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Variable	Category	M±SD	t/F
Gender	Male	3.21±0.59	-0.44
	Female	3.25±0.52	
Grade	First	3.13±0.64	0.33
	Second	3.22±0.61	
	Third	3.24±0.55	
Monthly allowance (Won)	Under 30,000	3.23±0.68	1.78
	30,000~Under 60,000	3.23±0.51	
	60,000~Under 90,000	3.01±0.29	
	Over 90,000	3.37±0.77	
Father's age	≤49 years old	3.21±0.57	-0.55
	≥50 year old	3.25±0.58	
Mother's age	≤49 years old	3.22±0.56	-0.18
	≥50 year old	3.25±0.67	
Father's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3.22±0.56	-0.58
	Over college graduate	3.25±0.67	
Mother's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3.16±0.57	-1.36
	Over college graduate	3.26±0.57	
Socioeconomic status	High	3.39±0.73 <sup>ab</sup>	4.07*
	Medium	3.17±0.53 <sup>b</sup>	
	Low	3.48±0.64 <sup>a</sup>	

\*p<0.05; a, b show the results of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부모의 학력, 가정형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가 Table 6에 제시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학년만이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년이 높아질수록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을 수업시간을 통해 접할 기회가 많아져 지식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2)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년, 월평균 용돈, 부모의 연령, 부모의 학력, 가정형편, 그리고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을 독립변수로 하여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용돈(6만~9만원 미만), 가정형편(중),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즉, 월평균 용돈이 9만원 이상에 비해 6만~9만원 미만인 경

우, 가정형편이 '하'에 비해 '중'인 경우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Joo(2011)의 연구에서도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이 높은 학생들이 식행동 지수가 유의적으로 높아 식행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또한 Lee(2005)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환경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식품구매 행동, 식사 행동, 뒤처리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학생들의 녹색식생활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져 녹색식생활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녹색식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6.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for knowledge of green dietary life

Variable	$\beta$	t value
Gender		
Male	0.09	1.19
Female	Ref. <sup>1)</sup>	--
Grade	0.18	2.90**
Monthly allowance(Won)		
Under 30,000	-0.10	-1.51
30,000 ~ Under 60,000	0.02	0.33
60,000 ~ Under 90,000	0.07	1.05
Over 90,000	Ref.	--
Father's age		
≤49 years old	Ref.	--
≥50 year old	0.07	1.12
Mother's age		
≤49 years old	Ref.	--
≥50 year old	0.03	0.46
Father's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Ref.	--
Over college graduate	0.07	1.11
Mother's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Ref.	--
Over college graduate	0.12	0.06
Socioeconomic status		
High	0.09	1.45
Medium	-0.02	-0.27
Low	Ref.	--
Constant		9.76
F value		8.41**
Adjusted R <sup>2</sup>		0.03

\*\* p<0.01

<sup>1)</sup> Ref. means a reference group in the regression analysis.

### 5.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의 평균을 보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이 5점 만점에 3.78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3.40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 ‘건강에 유익한 식품과 식단’, ‘우리나라 전통음식’이 각각 3.37점, ‘식사예절’ 3.34점, ‘텃밭에 채소 가꾸는 법’ 3.18점, ‘친환경 관련 인증표시의 종류’ 3.09점, ‘농촌마을 체험’ 3.06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문항 모두 중간값인 3점을 넘어 본 연구에서 제시된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 내용의 요구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 아동을 대상으로 한 Kim(2013)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가장 하고 싶은 녹색식생활 실천으로는 전통음식 만들어 보기가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채소 길러보기 25.2%, 농어촌 체험하기

13.3%,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7.7%, 식품표시 확인하기 6.7%, 분리수거하기 5.6%, 길거리음식 가려먹기 3.5%, 친구와 음식 나눠먹기 2.9%로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학교의 녹색식생활 요구도 및 교육에 따른 효과관정을 연구한 Joo(2011)의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녹색식생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안전한 식품섭취>손씻기>친환경 농산물이란, 골고루 균형을 맞춰 먹는법, 우리 몸에 좋은 발효식품 잘 먹는 방법, 바른 식사예절>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과 아동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령에 따른 피험자의 요구도가 교육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중학생은 사춘기의 시기로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Table 7. Result of the regression analysis for practice of green dietary life

Variable	$\beta$	t value
Gender		
Male	-0.04	-0.55
Female	Ref. <sup>1)</sup>	--
Grade	0.04	0.68
Monthly allowance(Won)		
Under 30,000	-0.02	-0.28
30,000 ~ Under 60,000	-0.04	-0.55
60,000 ~ Under 90,000	-0.13	-2.16*
Over 90,000	Ref.	--
Father's age		
≤49 years old	Ref.	--
≥50 year old	0.04	0.56
Mother's age		
≤49 years old	Ref.	--
≥50 year old	0.01	0.01
Father's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Ref.	--
Over college graduate	0.07	1.16
Mother's educational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e	Ref.	--
Over college graduate	0.11	1.71
Socioeconomic status		
High	-0.07	-0.77
Medium	-0.17	-2.78**
Low	Ref.	--
Knowledge about green dietary life	0.14	2.28*
Constant	3.20	
F value	8.41**	
Adjusted R <sup>2</sup>	0.06	

p<0.05, \*\*p<0.01

<sup>1)</sup> Ref. means a reference group in the regression analysis.

최근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는 외모지향적 가치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너무 외모에 치중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도록 하고 건강하게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 등 환경오염 예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교육요구도도 대체로 높게 나타났는데, Kim & Kim(2011)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이 녹색식생활 연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식생활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었고 응

답자의 96.22%가 환경오염을 줄이는 식생활 실천이 녹색식생활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일선 교사들도 녹색식생활 교육에서 환경오염 예방과 관련된 교육이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고 있었다. 한편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높은 반면 앞에서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에서 우유통 분리수거에 대한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앞으로 분리수거 등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녹색식생활 행동이 습관화되도록 하여 실천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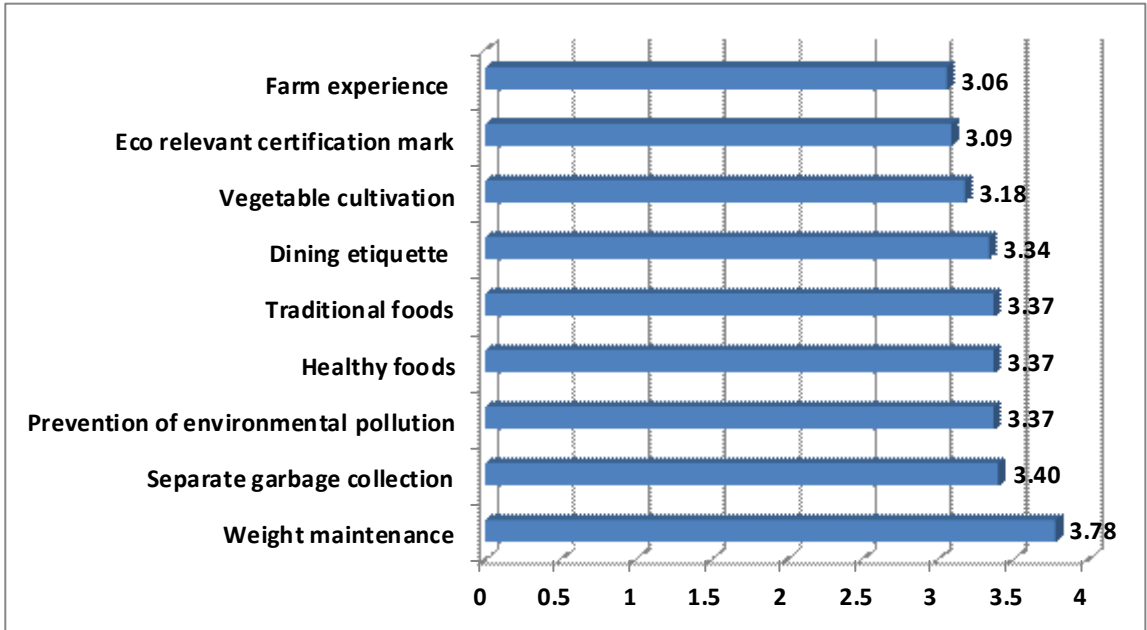


Figure 1. Educational content need for green dietary life

(Rated with a 5-point scale: 1=Never and 5=Highly.)

## V. 요약 및 결론

세계적으로 녹색식생활 관련 교육이 도입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식생활교육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녹색식생활 교육이 미흡하게 실행되고 학생들의 인지도도 낮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녹색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중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하여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행동 수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정답률의 평균은 56.95%,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의 전체 평균은 55.83점이었다. 각 영역별 수준을 살펴보면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에서는 건강, 환경 순이었으며,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은 건강, 환경, 배려 순으로 나타났다.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학년으로 나타나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도 높았다. 한편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용돈(6만~9만원 미만), 가정형편(중),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월평균 용돈이 9만원 이상에 비해 6만~9만원 미만인 경우, 가정형편이 '하'에 비해 '중'인 경우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식생활의 교육내용 요구도는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 건강에 유의한 식품과 식단,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순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볼 때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이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들의 녹색식생활 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녹색식생활 지식 중 친환경식품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점수가 평균 점수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들에게 친환경식품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의 세부영역에서 환경과 배려에 대한

수준이 건강 수준보다 낮게 나와 향후 녹색식생활 교육에서 환경과 배려에 대한 교육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식재료를 이용하여 학교 급식을 실시하거나 학교 급식시간에 음식 생산자에 대한 배려와 감사의 마음을 갖도록 지도하고, 또한 학교의 텃밭에서 채소를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녹색식생활 행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을 정규 교과 과정에서 다루기 힘든 경우에는 재량 학습이나 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가 모든 항목에서 중간 이상의 값으로 높게 나타나서 학생들이 녹색식생활에 대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 농림수산식품부 (2010). 녹색식생활지침서.
- 김정원 (2011). 녹색식생활 교육을 위한 교과서 본문 사례 개발. 한국실과교육학회 2011학년도 동계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07-125.
- 임노규 (2010). 녹색식생활의 미래와 실과교육의 가치. 2010학년도 실과교육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83-196.
- Chae J. S., Kim J. S., Yoo, D. R., Kim, J. H., & Park, M. S. (2008). Consumer education in the consumer sovereignty era. Seoul: Shinjung.
- Choe, S. H. (2010). *The LOHAS index and LOHAS products purchasing behavior of consum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Seoul, Korea.
- Jeon, S. K., Kim, H. J., Kim, Y. K., Jung, K. A., & Lee, S. S. (2011). Education for green dietary life of health, environment, and consideration. Seoul: Yangseowon.
- Joo, S. H. (2011). *Investigation of needs for green dietary life and effect of green dietary education in children of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gin University, Yongin, Korea.
- Joo, Y. Y. (2011).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education programs for green dietary life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in the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M. S., & Bang, G. H. (2008). The effects of plant cultivation activities up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1(1), 37-61.
- Kim, E. M. (2013). *The effect of mother's green food dietary attitude and health oriented consumption o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green food purchase attitu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I. A. (2011). *The influence of LOHAS and green dietary life on the preference in traditional food health: Focus on female high-school students in some local area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 Kim, W. K. (2010). Dietary education support act and middle school dietary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2(4), 1-13.
- Kim, H. S., & Kim, S. J. (2011). Elementary school teachers' recognition of green dietary life education. *Research of Science Education*, 13(1), 75-94.
- Kim, K. R., & Jeong, Y. O. (2008). The effect of vegetable gardening on sociality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21(1), 153-165.
- Lee, O. K. (2005). *Knowledge and consciousness on environment, and eco-friendly dietary managing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Min, E. H. (2012). *Effect of green dietary life program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 about health, environment and conside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Paek, J. K. (2010). *Effects of the green consumer's education*

- focused on dietary field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vironmental awareness & attitude: Focused on 5th grad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Korea.
- Sin, B. L. (2011). *Development of a green diet teaching strategy based on practical problem solving in practical ar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Cheongju, Korea.
- Woo, Y. M. (2011). *Importance status and requirement for components of green lifestyle education science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국문요약>

본 연구는 녹색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적인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대구·경북 지역에 있는 중학생 2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행동 수준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자료는 SPSS Windows V.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조사대상자의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 정당률과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 수준은 높지 않았으며, 각 영역별 수준을 살펴보면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에서는 건강, 환경 순이었고,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은 건강, 환경, 배려 순으로 나타났다. 중회귀분석 결과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변수는 학년이었고,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 용돈(6만~9만원 미만), 가정형편(중),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이었다.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에서는 정상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방법, 건강에 유익한 식품과 식단,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 순이었다.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이 녹색식생활에 대한 행동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중학생들의 녹색식생활 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녹색식생활에 대한 지식을 높이도록 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식생활에 대한 교육내용 요구도가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내용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08월 04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08월 12일, 게재확정일자: 2013년 11월 20일